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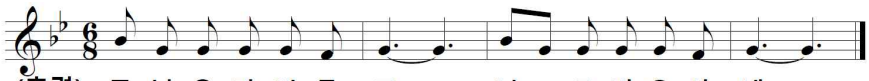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1 사무 26,2.7-9.12-13.22-23

[화답송] ····· 시편 103(102),1-2.3-4.8과 10.12-13(◎8ㄱ)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제 2 독서] ····· 1 코린 15,45-49

[복음환호송] ·····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6,27-38

[성가안내]

- 입당성가 [25] 사랑의 하느님
- 봉헌성가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170] 자애로운 예수
- 파견성가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 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전 마지 마가렛	가족
이 영우, 이 태묘	이 상홍 스테파노
이 정진 안토니오	유 경자 데레사
이 정진 안토니오	이 지훈 아녜스
이 정진 안토니오	이 병국
김 금옥	정 희자 리드비나
최 예진 레지나	이 문자 바올라
정 또안심, 박 종환, 강 순희	서 경자 율리아

생미사	봉헌
이 영애 레지나, 이 조앤 그레이스	김 현숙 그레이스
이 영애 레지나	이 병국
이 영애 레지나	이 지훈 아녜스
이 경자 율리안나	김 애희 테클라
김 정숙	이 경자 율리안나
정 영시 스테파노 박 영순 아가다 (가정 위해)	정 다경 마리아
장 해라 (빠른 쾌유 위해)	하늘처럼 성가대
율릿다 김 경련	익명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 1	복사 2
2월20일	이지훈 아녜스	강호영 대건 안드레아	김승연 안나	김승연 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김진수 대건 안드레아	정동주 유스토
2월27일	김진섭 야고보	김은아 미카엘라	이지연 안젤라	김은아 미카엘라	이지연 안나 레지나	권민호 바오로	최예준 사도요한

● **2021 성지 주일에 받으신 성지가지 모읍니다.**
2월27일 성당 입구 바구니에 넣어 주세요.

● **공동체 설립 25주년에 첨부할 '신앙 체험담' 모집.**
각 단체별로 2월 27일까지 제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동체 설립 25주년 추진 위원회의**
- 2022. 2. 20 주일 미사 후
- 2층 교리반

● **제 188차 꾸리아 월례 모임 – Zoom Meeting**
- 오늘, 20일 오후 2시
- Zoom ID : 3563373663
- Pass Code : 123456

● **성소 후원회 (양업회) 연수**
- 일 시 : 2022. 2. 20 (일) ~ 2. 21 (월)
- 장 소 : 뉴튼 수도원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교리	주일 10:30am – 교육관 3 A

[단체모임 안내] : 개방일은 추후 공지합니다. 방배정 먼저 확인하세요.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am	Conf.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요셉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C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am	교육관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am	Conf. Rm(1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am	교육관 2E
성령기도회	06:00pm~07:30pm	Conf. Rm(2F)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am	교육관 1B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am	프란치스 룸
'신명' 풍물패	둘째, 넷째 주일 2:00pm~	교육관 3A
예비자 교리반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3A
청년회	매 주일 10:30 am ~	교육관 2A
하늘처럼 성가대	am~13:30pm	교육관 3B
청년 전례부	~	교육관 2E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25주년 기도문

(1997. 3. 2. ~ 2022. 3. 6.)

좋은신 주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하나 되도록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향해 걸어온
맨하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한인 공동체가 설립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
주님께서 성읍을 지켜 주지 않으시면
그 지키는 이의 파수가 헛되리라.' (시편 127)는 말씀처럼,
지금 저희 공동체가 현존하고 있음은
당신의 은총 덕분임을 고백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하오니, 공동체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애써 온
모든 형제들, 자매들, 수도자들과 사제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당신 나라 건설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당신 눈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소서.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태 5,13-14) 계속하여
당신의 좋으심을 증거 할 한인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늘 "감사하는 마음"과 "나눔과 함께 하는 정신"으로
"당신 안에 하나 되게"하시며,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을 본받아,
가는 곳마다 당신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동희(헬레나)
김용기(요셉) 지군자(스테파니)
정창동(폴리나) 진정은(마리아)
고종호(마태오) 이진자(세실리아)
이병국 (요한) 박 명순 (모니카)
이경봉 (요셉 그레고리오)

[2022년 2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의 사명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대한 새로운 응답들을 끊임없이 찾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CAMPUS Education
Learn English with US
유학생 환영
212-868-9777 (한국어 상담)
koreanny@studyoncampus.com
410 8th Ave. 5 FL New York

Custom Made
Clara Wedding Gown
& Dresses
917-596-1460
ClaraGowns@gmail.com

오늘의 복음 묵상

(루카 16,27-38)

루카가 전해주는 오늘의 복음은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야기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68항은 대답합니다. "(이 가르침은) 행동의 근원인 마음을 개선하도록 인간을 이끈다. 마음은 인간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중에서 선택하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심화되며, 이러한 덕들과 더불어 다른 덕성들이 다져지는 본래의 자리이다." 그런데 이같이 마음가짐이 바뀌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sicut)'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 표현하듯이 '하느님처럼' 실천한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의 원동력입니다. 이 정신을 가톨릭 교회 교리서 2842항이 정리했습니다. "것처럼(sicut), 이것은'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참여, 우리 하느님의 거룩함과 자비와 사랑이 담긴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갈라 5,25)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똑 같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실 수 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처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은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주다.'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것처럼(sicut)'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생겼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처럼'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독서 코린토1서는 '부활 때에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이야기입니다.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첫 아담과 영이 되신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며 하늘에 속한 아담, 즉 예수님의 모습을 지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글을 통하여 저자는 인간의 본성과 영적인 능력을 비교하면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는 실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 한 상만 토마스 신부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

미움 그 괴로운 감정

모난 돌과 같은 사람의 마음,
상처 아물지 않은 상태 의미
돌들이 부딪치며 둥글게 되듯,
갈등 겪으면서 모난 마음 깍여
미운 마음은 죄 아닌 성장 과정
회피하면 더 큰 문제 생길 수 있어

어떤 분이 고민을 털어 놓으시길,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무엇이든 잘 해 주고 싶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싫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초지 일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둥근 돌이 아니라 모난 돌이라서 그렇습니다. 모난 돌이란 마음 안에 콤플렉스와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난 돌이라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난 돌이 둥근 돌이 되는 것은 다른 모난 돌들과 무딪치면서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즉 갈등을 겪어야 모난 돌이 둥근 돌로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헤겔은 세상만물은 정반합의 과정, 즉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자분들이 봉쇄수도원을 다녀오시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수녀님들이 아기들처럼 너무나 얼굴이 밝다고요. 그럴 수 밖에요! 같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봉쇄수도원이니, 매일 서로에게 적응하느라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원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수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기도보다 사람과 사는 것이 더 힘들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어줘서 좋다고 합니다. 미운 마음은 죄가 아니라 성장과정의 갈등일 뿐입니다. 미운 마을 가지지 않으려고 사람을 피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재 유머입니다.
어떤 본당에 본당 신부에게 쓴 소리를 퍼붓는 자매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들 사이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혔는데, 유독 한 신부만이 그 자매편을 들었습니다. 다른 신부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신부님은 성격이 까다롭다고 소문난 분인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거슬리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 신부가 씨익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자매가 그렇게 쓴 소리하고 나면 반드시 내게 감사헌금을 하고 간다네. 5분만 참으면 10만원이 생기는데 그까짓 못 참겠는가?"